



## 여덟 평의 아담한 서점을 그림책 정원으로 키운 그림책 엄마

우리나라 어린이서점 1호 '초방'의 신경숙 대표(43)는 요즘 정신 없이 바쁘다. "여기가 카페로 바뀐 건가요?"라며 찾아오는 손님들도 맞아야 하고, '초방'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출판관계자들도 반겨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출판계의 마당발로 소문난 그의 명성을 대변하듯 모양새를 바꿔 재개업한 서점 곳곳에는 축하 화환이 즐비하다.

"인터넷 서점이 활성화되면서 작은 서점들이 더 힘들어졌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죠. 더 새로운 모색을 하면서 책과 관련된 기획을 해 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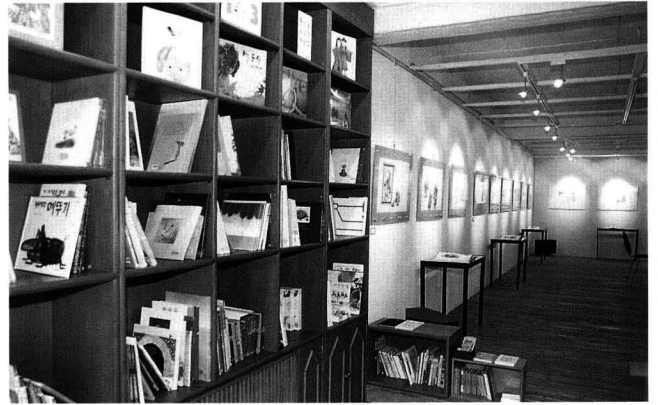
'초방'은 본래 여덟 평 규모의 '손바닥' 만한 서점이었다. 신경숙 씨는 1990년 크리스마스에 쌍둥이 딸의 애칭인 초롱이, 방실이의 앞글자를 따서 '초방'을 차렸다. 연세대 동문東門 초입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입소문의 위력은 대단했다. 어린이서

점의 전례가 없었던 까닭도 있었다. 결국 '초방'이 물꼬를 튼 이후 우리나라에는 100개가 넘는 어린이서점이 생겼고 어린이책 전문 유통업체도 탄생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작은 공간이 어린이출판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었다. 이 공을 쌓은 신경숙 씨는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림책 아이디어뱅크'다. 즉흥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것들을 현실화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그가 '초방'을 만들게 된 이유도 아주 일상적인 데 있었다.

"결혼하고 남편 사업 때문에 미국에서 2년을 보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다섯 살이었어요. 주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때 도서관에서 추천해 준 그림책들을 많이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작지만 알찬' 그리고 '양질의 어린이책

'초방'은 어린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유로운 공간 배치를 시도했다.



정보'를 담은 서점을 꾸려보자고 욕심을 부렸다. 그렇게 차린 서점은 약 10년의 세월 동안 모양새를 바꿔가며 조금씩 규모를 넓혀나갔다. 그리고 올 6월, '초방'은 45평의 북카페 겸 갤러리로 다시 태어났다. 신경숙 씨는 기존의 서가를 줄이는 대신 그림책 원화전 등 책 관련 전시를 위해 공간을 여유 있게 배치했다. 그동안 꼬마였던 두 딸들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신경숙 씨는 '초방'을 다시 열면서 출판까지 겸하게 되었다. 이미 1993년부터 《솔이의 추석이야기》, 《만희네 집》 등을 기획했던 그는 이렇게 1인 독립 출판에 도전했다. 그는 실험성이 강해서 '모험'을 걸어야 하는 작품에 과감하게 투자하려는 출판사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책들이 워낙 실험적이라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출판사를 여기저기 기웃거리 봤는데 결국 혼자 기획, 편집, 영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여기서 기획과 편집을 다 합니다. 책 내용처럼 출판형태도 실험성을 띠게 된 거죠. 영업, 마케팅 쪽에서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그의 말처럼 '초방' 이름으로 나온 책들은 기존의 그림책과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수궁가》와 《심청가》는 판소리의 운율을 그대로 살려낸 그림책으로 어려운 판소리 사설을 CD 해설로 쉽게 풀어주면서 음악적 감상을 더한 동양적인 책이다. 한국 고유의 신화적 요소가 담겨 있어 책은 지난 4월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에서 미국 수입상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다. 외국인들의 시선을 한몸에 사로잡은 책도 있다. 우리 전통의 조각보를 이용해 숫자를 익히게 하는 그림책 《한조각 두조각 세조각》은 볼로냐에 온 모든 외국인들에게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실험적인 어린이책으로 화제를 만드는 신경숙 씨는 우리 그림책이 문학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책맛을 골고루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꼭 책이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편식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림책은 그림으로서도 책을 100퍼센트 보여주고, 글로서도 100퍼센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구분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림책에서도 좀 엉뚱하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드라마틱한 소재보다는 특정한 상황들이 오고갈 때 그 순간의 이미지나 상황들을 소개하는 걸 좋아한다. 그게 신경숙 사장이 찾은 자신의 취향인 것이다. 스토리가 완벽하게 짜여진 산문보다는 논픽션 요소가 가미되고 연출방식도 색다른 책을 기획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4개월 동안 서점 문을 닫고 '초방'을 북카페, 갤러리, 소규모 서점으로 개조한 것도 책을 통해 다양한 것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려는 일종의 노력이었다.

“물론 책이 우선이 되죠. 거기에 그림도 곁고, 이미지도 활용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림책은 무엇이고 왜 그 책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진행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림책과 이어진 다양한 끈들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숨쉬고 있다. 유치원을 방문하며 원화전시회를 펼치는 일, 그림책 세미나 개최, 일산지구 도서관 순회 등 밀고나갈 기획만도 적지 않다. 그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초방'을 통해 현실이 되고, 이 공간에서 엉뚱하고 독특한 그림책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초방'은 즐기고, 만들고, 가꾸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림책 정원'이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림책 마니아가 있다면 그 정원에 앉은 신경숙 씨를 찾아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